

張志淵의 工藝觀

崔 公 鎬

(弘益大 博物館)

〈目 次〉

- | | |
|--------------|------------|
| I. 머리 말 | 2. 工藝製作觀 |
| II. 張志淵의 工藝觀 | III. 맺 음 말 |
| 1. 工藝價值觀 | |

I. 머리 말

韋庵 張志淵(1883~1931)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팽창주의 세력에 의한 위기의식이 乙巳條約을 계기로 더욱 고조되었던 구한말의 격변기를 살다간 愛國啓蒙思想家였다. 그는 家風을 이어 儒學에 학문의 기초를 두면서도 星湖學派系列의 經世學과 清末의 變法思想家인 梁啓超 등의 저서를 통해 自強論을 정립했던 사상가로서는 물론, 탁월한 국제감과 현실인식을 토대로 하여 국내의 정세에 어두운 民智를 일깨우고, 國權회복운동과 민족 계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한국 근대 지성사의 흐름을 주도했던 대표적 인물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¹⁾

그런데 장지연은 이와 같은 애국계몽사상가로서의 업적 뿐 아니라 근대공예사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여겨져 주목을 끈다.

그가 활동했던 1900년을 전후한 무렵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예활동의 중요한 요소인 제작수단에 산업기계와 함께 새로운 제작분야가 소개되는 등 공예적 상황도 큰 변모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그는 전시기에 비해 크게 퇴조하였던 이무렵의 공예적 수준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 개선방안을 신문 논설 등 여러 편의 글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한 바 있다. 장지연의 공예에 관한 인식은, 산업화가 선진된 서구의 실상과 신학문에 대해서 폭넓은 관심을 가졌던 그

1) 장지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이해에는 다음의 논조들이 참고된다.

千寬宇, 〈張之淵과 그 思想〉, 《白山學報》 제 3 집, 1967, pp.489~514. 崔榮玉, 〈韋庵 張志淵의 自強教育思想〉, 《淑大史論》 제 8 집, 1974, pp.102~120. 具磁赫, 〈張志淵의 歷史意識과 教育論〉, 《歷史教育》 제27집, 1970, pp.116~127. 金英愛, 〈韋庵 張志淵의 社會經濟思想研究〉, 《弘益史學》創刊號, 1980. pp.24~42. 그리고 본고의 서술체계와 觀點은 洪善杓, 〈李奎報의 繪畫觀〉, 《美術資料》 제 39호 등 일련의 논고에서 도움 받은 바 크다.

가, 이를 國貧과 주권상실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여 나라의 자강과 독립을 위해서 공예의 興業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여겼던 데서 촉발되었다고 믿어진다. 공예를 공예분야 자체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사상인 自強論의 실천과제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공예론 속에는 공예의 가치와 존재의의, 제작활동 등에 관한 폭넓은 견해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근대공예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지연의 이와 같은 공예관은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여 공예가 담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을 제시해 주었음은 물론, 공예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도 계도적 구실을 수행했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그의 주장이 국권회복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대의명분에 기초하면서, 대중계몽에 높은 파급효과를 지닌 신문매체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장지연의 공예에 관한 견해를 살펴보는 것은 장지연 개인의 공예관은 물론, 기계수용에 따른 개념상의 혼란과 제작영역의 분화 및 정착과정 등으로 압축되는 근대공예사의 흐름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핵심적 과제가 될 것으로 믿어진다.

이글에서는 장지연의 공예관을, 그의 자강사상과 관련하여 발표된 여러 편의 논설을 통해서 공예가치관과 제작관에 중점을 두고 살펴 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는 근대기의 공예관과 그 사상적 흐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시도되었기 때문에, 그 요점만 간략하게 시론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II. 張志淵의 工藝觀

工藝의 가치와 존재의의는, 사회의 내적 구조 속에서 갖는 실질적인 쓰임새와 함께 그 시대 생활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어떠한 기능을 담당했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공예의 존재가 실용과 審美的 가치의 두가지 속성을 공유한 複合形式으로서 생활양식과 사회 문화 구조의 틀에 토대하여 형성 발전해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판단의 기준도 공예활동을 둘러싼 내적, 또는 외적 요인에 따라 변모하기 마련이다. 제작여건의 하나인 생산수단의 변화가 내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외적인 요인으로는 정치·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輸要의 여건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匠人의 기술에 의한 수공업적인 생산방식을 오랜 전통으로 삼아 왔던 공예계가 구한말에 이르러 西歐의 근대적 산업기계를 도입함으로써 생산방식에 혁신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외세에 의해 國權이 침탈될 위기에 직면하였던 공예적 상황은, 공예활동의 고유영역 자체에까지 파급될 만큼 그 영향이 컸음은 물론, 가치관 및 제작여건에도 큰 변화를 초래했다고 하겠다.

장지연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예가 어떤 기능을 담당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작되어야 하는가 하는 공예의 價値와 존재의의 및 제작활동 전반에 걸친 폭넓은 견해를 여러 편

의 논설을 통하여 개진하였다.

1. 工藝價值觀

장지연은 〈皇城新聞〉의 주필로 재직할 당시인 1900년을 전후하여 ‘工藝可勉發達’, ‘論工藝獎勵之術’ 등의 제목으로 論說을 연이어 게재하면서 공예의 중요성과 그 진흥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²⁾ 뿐만 아니라 1906년 尹孝定, 沈宣性, 林珍洙, 金相範 등과 함께 결성하였던 실천적 애국계몽운동 단체인 〈大韓自強會〉의 회보를 비롯하여 각급학교의 설립취지서 등을 통해서도 공예 진흥의 불가피성을 거듭 주장하였다.³⁾

“當究泰西之所以致富強者 謀強之道必先謀富 謀富之策必致力於商務而商務之原 非講究工藝之業不可…”라고 했던 〈皇城新聞〉의 논설은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다.⁴⁾ 서양의 제국들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먼저 國富를 도모해야 하는데, 富는 곧 商務에 힘써 얻을 수 있으며, 상무의 근원은 工藝를 강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工藝를 발전시키면 상무의 부흥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상무는 궁극적으로 서구 열강들 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공예를 국가의 부강을 도모하는 謀富之策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強함을 꾀하는 길은 … 工藝法을 강구하는데 있다”고 한 내용 속에도 반영되어 있다.⁵⁾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장지연이 ‘工藝’라는 용어의 개념을 오늘날과 달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의 공예론이 공예영역의 발전을 위한 것 보다는 자신의 중심사상인 自強論의 맥락에서 그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개진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공예’라는 용어 자체가 商務의 대상물인 ‘物產’이나 ‘工業’ 또는 ‘殖產’과 혼용되면서 포괄적인 입장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두 주장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즉, 1899년의 〈皇城新聞〉 논설에서 “現今에 工業의 衰減함이 一日에 日甚하야…”라고 하면서 富國의 요체인 수공예가 쇠퇴해가는 현실을 ‘공업’이라는 용어를 통해 지적하였는데, 불과 그 1년 후인 1900년의 같은 신문에서는 “謀強之道… 非講究工藝之業不可”라 하여 ‘공예’의 연구개발이 없이는 國富를 도모할 수 없음을 일깨우고 있다.⁶⁾ 공예와 공업, 식산을 부국지책이라는 공통개념으로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용어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완성된 결과물로서의 제작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인식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論工藝獎勵之術’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예품으로 ‘廣州의 磁器’ ‘固城의 貝器(나전칠기)’ ‘南平의 摺扇’ 등과 더불어 ‘活字’ ‘龜船’ ‘震天雷’를 함께 거론하였다.⁷⁾ 拾

2) 《皇城新聞》 1900년 4월 25일자 2면 논설 및 同 1903년 1월 10일자 2면 논설 등 참조.

3) 〈大韓自強會設立趣旨書〉, 《大韓自強會月報》, 創刊號, 1906. 7 및 〈皇城中央學會趣旨書〉 등 참조.

4) 張志淵, 〈國家貧弱之故〉, 《韋庵文集》 나라사랑 제 5 집, (외솔회, 1971), p. 48

5) 張志淵, 〈殖產自強의 必要〉, 《大韓自強會月報》上, 創刊號(1906, 7), pp. 36~37.

6) 《皇城新聞》 1899년 10월 2일자 논설 및 1900년 4월 25일자 논설 참조.

7) 《皇城新聞》 1903년 1월 10일자 논설 참조.

물론 이러한 인식태도는 장지연 뿐 아니라 이무렵에 활약했던 민족지식인들의 보편적인 경향으로 보인다. 장지연과 함께 〈大韓自強會〉 활동에 참여하였던 金成喜도 그의 ‘工業說’에서 “國家의 獨立富強은 반드시 工業界의 기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공산품의 제조분야를 공업으로 지칭하면서도 “土木金石毛草之類를 포함한 天下之物이 工人의 心目에 의해 成器되므로 有一人之工藝則有一物之製作…”이라고 함으로써 같은 뜻으로 공예란 용어를 사용하여 제작담당층인 장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⁸⁾

이와 같은 그의 공예에 관한 견해는, 두가지 점에서 오늘날과 같은 문화적 차원으로서의 공예 개념과 다른 인식체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 하나는 공예의 개념을 공업과 혼용하면서 그 영역을 공예를 포함하여 공업 또는 물산에 이르기까지 넓히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앞에서 이미 지적한 대로 공예를 謀富之策이라는 經世的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체계는 장지연 개인의 공예관의 실상은 물론 당시의 공예에 대한 일반의 인식풍토와 함께 개념과 가치관의 변모과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동양문화권에서 공예는 전통적으로 人工의인 기술에 의해 제작된 생활用器와 각종 기물을 포괄적으로 지칭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실질적 기능인 쓰임새와 함께 심미적 기능으로서의 조형적 측면을 동등한 가치로 여기거나, 또는 실질적인 기능을 배제한 채 심미적인 기능만을 확대 해석하려는 일련의 제작경향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용어 및 가치관에 혼란을 보인 장지연의 인식체계는 이 무렵의 공예적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서, 개항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을 통해 들어온 미술 영역으로서의 공예개념과 용어가 새롭게 정착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공예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던 생산수단을 포함한 공예적 여건의 변모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시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공예란 용어의 用例를 찾아보기 힘들다.⁹⁾ 조선시대 말기까지 공예품 제작의 중심이었던 관영수공업체제에는 중앙관청의 소용기물을 제작했던 京工匠에만 해도 무려 129종의 전문 제작분야가 소속되어 있었다.¹⁰⁾ 그러나 각 분야별 명칭 외에는 이들 제작분야를 총칭하는 용어는 별도로 사용되지 않았다. 굳이 찾는다면 ‘생활한다’ ‘세간을 마련한다’ ‘제작한다’라는 복합적인 뜻을 가진 ‘성녕’이라는 우리말과 가장 가깝다고 하겠다.¹¹⁾

이처럼 다양한 제작분야 가운데는, 오늘날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공업이나 기타 분야로 분류되는 항목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¹²⁾ 그러나 현재의 工藝家에 해당하는 工匠의 기술영역 안에

8) 金成喜, 〈工業說〉, 《大韓自強會月報》 제10호, 1907, 5 pp. 27~30.

9) 工藝의 用例는 唐書 〈閻立德典〉의 “... 父礪爲隨殿內少監 本以工藝進故立德與第立本 皆機巧有思 ...”라는 문장에서 初見된다. 그러나 이후에는 계속 사용된 것 같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883년 朝鮮報聊使로 미국에 갔던 閔泳翊의 歸國復命書 내용 가운데 미국대통령의 서한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오랜 것으로 보인다.

10) 《經國大典》, 工典, 工匠條 참조.

11) 李宗碩, 〈工藝史 研究의 諸問題〉, 《石南 李慶成先生古稀紀念論文集》, (一志社, 1988), pp.127~136 참조.

12) 예를 들면, 大木匠, 冶匠, 洗踏匠, 紡織匠, 印出匠, 紙匠 등은 각각 건축, 제련, 세탁, 방직, 인쇄, 제지분야에 속한다.

서 이들 분야는 큰 불편 없이 공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당시의 생활양식과 문화구조가 未分化된 상태에서 종합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던 탓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시의 생산수단이 단순한 도구만을 사용하는 수공업적 형태였다는 점에서 각분야가 본질적으로 공통성을 지녔기 때문이라 하겠다. 더욱이 이들 각각의 기술분야가 서로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기술집약적인 전문가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었다. 따라서 현재의 개념으로 보아 이들 제작영역이 공예 외적인 분야였다 하더라도 제작과정과 기술적 측면에서는 다분히 공예적 성질을 공유하였으며, 개념과 산업구조상의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성도 크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장지연이 工藝觀을 피력했던 1900년을 전후한 무렵에는 새롭게 수입된 생산기계가 점차 공예품 제작분야의 중심부로 이동하면서 제작방식의 주역으로 부상되는 등 공예계 전반에 큰 변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전통 수공예 분야에서는 기계화 및 생활양식의 변화추세에 따라 점차 그 영역이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개화기의 공예적 상황은 전통적인 수요구조는 물론 공예의 가치관과 존재의의에 대한 새로운 위상정립의 필요성을 제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예영역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용해 왔던 물산·공업분야에서 독립하여, 실질적인 기능과 심미적 기능의 공유라는 생활문화적 성격을 표방하면서 1930년대에 들어와 서야 비로소 文化構造 속으로 편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¹³⁾ 따라서 장지연이 주장한 공예의 영역과 개념에 관한 견해는, 이 무렵에 새롭게 수용된 공예와 공업의 용어를 별다른 차이 없이 차용하면서, 전시기까지의 종합적인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가 사용한 工藝·工業·殖産 등의 다양한 용어들은 산업으로서의 공업분야와 대량생산의 가능성을 예견한 기계공업분야의 필요성을 암시하면서도, 용어 자체에서는 전시기까지의 物産이라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¹⁴⁾ 그러나 장지연이 공예론을 피력했던 궁극적인 관심이, 앞서 지적한 대로 공예의 흥업을 통해 商務를 도모하고, 富國自強을 이루어 마침내 국권을 회복하려는 수단 자체에 있었기 때문에, 대량생산에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지닌 새로운 기계공업에 관심을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볼 때 그의 공예에 관한 가치관은 국가의 자강과 부국을 위해 기능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功利的 입장이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공예의 활동영역을 공업, 물산 등을 포함한 經世的 차원에서 이해하였던 것도 그러한 인식의 기반 위에서 가능했다고 하겠다.

장지연의 이와 같은 공예가치관은 그러한 가치체계를 형성시킨 당시의 시대상황과 밀접한 관련

13) 공예를 미술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32년 鮮展 제11회에 工藝部가 신설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東京藝大에서 圖案을 전공하고 돌아온 任禧宰가 1928년 8월 16일자 <東亞日報>에 ‘工藝와 圖案’이라는 주제로 논설을 발표한 이후, 1930년대 중반에는 朝鮮總督府에서 출간한 <朝鮮의 工藝及其의 資源>(1937)의 내용 속에서 공예분야 자체의 영역에 대한 분류를 나름대로 시도하였다. ‘美術工藝’와 ‘産業工藝’라는 용어는 이때 처음 등장하였다.

14) 그러한 사실은 전시기까지 사용해왔던 ‘工匠’이라는 용어를 장지연도 계속 쓰고 있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1900년 4월 25일자 <皇城新聞> 논설 참조.

이 있다. 어떠한 사상이든지 현실적인 모순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 사상이 정립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그의 공예가치관은 당시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경제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토대로 하여, 그 극복방안의 일환으로서 개진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지연이 인식하였던 당시의 현실은 말한 것도 없이 개항 이후부터 점증되어 왔던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팽창주의 세력의 위협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이었다.¹⁵⁾ 특히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기점으로 하여 일제 식민지세력에 의한 주권상실의 위기의식은 더욱 높아졌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당시 한국사회가 맞이한 당면과제는 국력을 배양하여 외세를 배척하고,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근대화는 물론 殖産興業이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서구 열강의 냉정한 팽창주의가 다른 나라를 병합하는 등 국가간의 약육강식이 횡행하는 것을 보고 언론 활동을 통해 누구보다 뛰어난 국제감각을 소유했던 장지연은 마침내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국권회복은 커녕 민족의 존립조차 어렵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이다.¹⁶⁾

그는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을 “국권이 땅에 떨어져서 국권이 미약하고, 국민이 자립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았다.¹⁷⁾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수백년간 中華를 숭배하는 主義를 가졌고, 虛文과 浮詞의 말단에 물들었고, 억압과 매질하는 정치 밑에서...”라고 지적하였다.¹⁸⁾ 즉 그는 억압적인 정치체제와 명분을 앞세우는 유교적 사유방식이 시대적이고 의존적이며 유약한 정신상태를 만들었다 하여 체제의 모순과 함께 공예적 여건이 취약한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의 공예가치관이 궁극적으로 부국과 독립에 귀일됨을 거듭 확인해 준다. 장지연의 敎育과 殖産을 통한 自強論과, 그 일환으로 표명된 공예의 기능론은, 초기 修學 및 그의 사상의 골간을 이루었던 實學과 더불어 淸나라 말기 變法思想家인 梁啓超(1873~1930)의 사상에 영향 받은 바 크다.¹⁹⁾ 특히 利用厚生을 근본으로 하는 조선후기 星湖學派系列의 實學에 접근하여 이를 매개로 자기의 사상을 심화·발전시켜 진보적인 개화사상가로 전향하였던 장지연은, 1898년을 전후하여 史禮所, 皇城新聞社 등에 몸담고 서울을 무대로 활약함으로써 국제적인 감각과 식견을 쌓는 한편, 양계초 등 변법사상가들의 저서를 통해 그들의 자강사상과 함께 西歐思想을 수용하였다.²⁰⁾ 1900년에서 1905년까지의 기간 동안 그의 공예론과 자강론이 가장 활발하게 개진되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과 관계가 깊다.

이상과 같이 장지연의 공예가치관은 식산·자강을 위한 효율적 수단이라는 功利的 입장에서 표명되었다. 장지연의 사상과 견해가 공예의 존재의의와 가치를 부국을 위한 것으로 강조함으로써,

15) 崔文衡, 〈列強의 對韓政策과 韓末의 情況—특히 1882년~1894년의 美·英·露의 態度를 中心으로—〉, 《淸日戰爭을 전후한 韓國과 列強》,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pp. 156~171 참조.

16) 앞책, p. 163.

17) 張志淵, 〈自強主義〉, 《大韓自強會月報》 제 1 권 2호, 1906년 9월호.

18) 張志淵, 〈自強主義〉, 《大韓自強會月報》 제 1 권 3호, 1906년 10월호.

19) 장지연은, 戊戌政變 후 日本으로 망명하여 언론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淸末의 變法思想家 梁啓超의 글을 탐독했고, 그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그 단적인 예로 그는 양계초의 저술 《敎育政策私議》(1906년 번역)와 《中國魂》(1908년 번역) 등을 번역·소개했다. 또 그가 1906년 《大韓自強會月報》 등에 발표했던 일련의 自強論 관계 논설들은 양계초가 《新民說》에서 주장한 것과 내용면에서 흡사하다.

20) 千寬宇, 〈張志淵과 그 思想〉, 《白山學報》 제 3 집, 1967. p. 492 참조.

공예를 당시의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부각시켰음은 물론, 근대적 생산방식 자체를 공예의 영역과 제작활동에 수용하여 중세적 공예관을 근대로 이행시키는데 계도적 구실을 하였다는 점에서 근대공예사적 의의가 적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의 공예가치관이 구국을 위한 계몽적 입장에서 개진됨으로써 공예분야 자체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제시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이 점은 그가 공예이론가로서가 아닌 실천적 자강론을 중심사상으로 하여 국권회복에 목적을 두었던 민족주의적 애국계몽운동가의 입장이었다는 점과 아울러, 생산기계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공업·산업분야에 개념 및 고유영역 설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던 과도기적 여건 등에 의한 시대적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다.

2. 工藝製作觀

장지연의 공예품 제작에 관한 견해는 이무렵의 개화를 주도했던 절충적 개화사상인 東道西器論에 토대를 두고 개진되었다. 즉, 기술은 개량하되 그 기술을 운용하는 정신과 태도는 전통적 제작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치자는 것은 技術이지 精神이 아니다”고 했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²¹⁾

공예품 제작에 관한 장지연의 이러한 견해는 특히 다음 두편의 논설 속에서 잘 나타난다. 즉, ‘工藝可勉發達’에서 장인이 공예품을 제작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開物成務하여 利用厚生케 하는 것”이라고 하였던 장지연은,²²⁾ 다시 ‘論工藝獎勵之術’에서는 “富를 꾀하는 策略은 … 工藝法을 장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무릇 工藝의 興함은 技術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²³⁾

여기서의 ‘開物成務’란 말은 ‘萬物의 뜻을 開通하고 天下의 任務를 성취한다’는 뜻으로, 〈易經〉의 ‘夫易開物成務 冒天下之道 如斯而已者也’라는 귀절에서 빌어온 것이다. ‘開物’이라는 말 속에는 ‘卜巫에 의하여吉凶을 안다’는 또다른 의미와 함께, 그것에 따라서 ‘成務’, 즉 ‘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두가지의 복합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이때 ‘物’은 사람, ‘務’는 業의 뜻이 되며 만물의 生成化育하는 이치를 알고 거기에 순응하여 제작활동에 임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러한 견해는 詩書畫를 臥遊之資로 삼았던 조선시대 士大夫들의 世界觀과 마찬가지로, 공예품을 제작하는 장인들도 삼라만상의 이치와 운행질서를 깨우쳐 그 이치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는 性理學의 입장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창조주의 造化에 의해 이루어진 자연의 산물과도 같이 공예품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창출해야 한다는 동양적 세계관의 하나인 ‘天工’의 개념과도 어느정도 상통하고 있다.²⁴⁾ 따라서 장지연은 수공예기술에 대한 전통적인 사유체

21) 李光麟, 《韓國開化史研究》, (일조각, 1970) p.45 참조.

22) 張志淵, 〈工藝可勉發達〉, 《皇城新聞》1900년 4월 25일자 논설 참조.

23) 張之淵, 〈論工藝獎勵之術〉, 《皇城新聞》1903년 1월 10일자 논설 참조.

24) 天工사상은, 인공적인 제작품의 제작기술에 대한 것으로서 오랜 전통을 지녔다. 그 대표적인 용례는 1637(崇禎 10)년, 명나라의 학자 宋應星이 공예를 비롯하여 농기구, 병기 등 18개 부문에 걸쳐 그 제작기술을 체계적으로 서술해 놓은 기술백과사전격인 《天工開物》이라는 책을 들 수 있겠다.

계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에 임하는 장인의 마음가짐과 태도, 즉 匠人精神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지연은 공예품 제작활동을 단순히 정신의 구현수단이라는 관념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편익과 국민생활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利用厚生’의 현실적 목표 또한 배제하지 않았다. “開物成務하여 利用厚生케 한다”는 앞의 내용에서와 같이 결과적으로는 ‘開物成務’의 제작태도를 ‘利用厚生’을 위한 것으로 귀결시키고 있는 것이다.²⁵⁾ 이러한 사유체계는, 앞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가 수학시절에 심취했던 星湖學派系列의 실학적 배경에서 형성되었다고 하겠다.²⁶⁾

그런데 利用厚生을 전제로 한 그의 제작관은 기술개발의 문제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富國을 꾀하는 策略은… 技術에 있다”고 했던 주장은 그가 利用厚生的 제작관과 같은 맥락에서 기술을 새로운 산업 기계기술의 개념에 가깝게 사용하면서 그 수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²⁷⁾ 당시에 새로 도입된 서구의 생산기계는 大量生産을 단시간 내에 가능케 함으로써 수공업 기술이 가진 취약점을 보완해주는 등 殖産興業에 적합한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지녔던 점에 주목한 듯 하다.

기술에 관한 그의 견해가 이처럼 수공업적 제작태도와 정신을 토대로 하면서도 기계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함께 거론하였던 것은 자신의 사유체계의 토대를 東道西器적 입장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즉, 공예를 국권회복이라는 현실적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했던 만큼 서구의 근대기술에 대한 수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술을 운용하는 주체로서의 장인들은 전통적 제작이념인 開物成務하는 匠人精神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장지연이 이처럼 공예활동에 있어서 제작기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배경에는, 당시의 공예적 여건이 이용후생과 自強, 더 나아가 독립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준치에 크게 못미쳤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깔려 있었다. 그가 “現今에 工業의 衰減함이 一日에 日甚하야 一絲一線도 外洋의 輸入을 全籍하고, 土陶火柴도 港來物品을 全賴하니 民이 不貧하기를 安得하며 國이 不弱하기를 安得하리오.”라고 지적 하였듯이 이무렵의 공예적 현실을 질과 양 모두에서 전시기에 비해 현저하게 퇴조하였다고 보았던 것이다.²⁸⁾

장지연은 우리나라가 가난한 것도 바로 工藝·工業의 퇴락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²⁹⁾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儒敎의 병폐적인 觀念 때문이지 결코 국민의 才能이

25) 《皇城新聞》, 1900년 4월 25일자 논설 참조.

26) 千寬宇, 앞책, p.495.

27) 《皇城新聞》, 1903년 4월 25일자 논설 및 〈殖産興業의 必要〉. 《韋庵文集》(나라사랑 5집, 1979), pp. 72~73 참조.

28) 《皇城新聞》, 1899년 10월 2일자 논설 참조.

29) 〈國家貧弱之故〉, 《韋庵文集》(나라사랑 제 5 집, 1979) p.48, “試究我國貧弱之所由因컨대, 未嘗不由於政治之結果하니 其原因이 有數種이라 一曰 社絶富源이오, 二曰 游食耗財니 究其本則兩者가 皆貧虛之爲也로다.”라고 하면서 기술 등 생산분야의 종사자는 적고 消費者는 많아 항상 재물이 부족한 점을 들었다.

西歐人에 비해 뒤지기 때문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그 증거로서 “先代의 예를 보면, 高麗의 文益漸과 그 손자 萊, 李忠武公”같은 사람들이나 “羅州의 簾, 江華의 席, 淳昌의 紙, 廣州의 磁器, 南平의 摺扇, 湖南의 竹器, 固城의 貝器 등 세계적으로 우수한 많은 제조품”을 들었다.³⁰⁾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백년간 中華를 崇拜하는 主義를 가졌고, … 또한 그 虛文과 浮詞의 말단에 몰들었고, 억압과 매질하는 정치 밑에서 속박되어 위축되고 유약한데다 게으르고 헛된 욕심을 부렸으니 (그것이) 오늘의 부진한 데로 길들여진 所以”라고 하여 봉건적 정치·사상의 구조적 모순이 오늘의 공예의 부진을 초래한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였다.³¹⁾

이와 관련하여 기술이 발달치 못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 1) 工匠에 대한 官吏들의 가혹한 대우와 이익의 收蓄.
- 2) 옛 習性만을 고수하면서 發展이 없는 儒敎者들의 態度.
- 3) 工產品의 輸入이 과다한 점.
- 4) 學問의 내용이 天命과 人性을 根本으로 하는 紙上의 것으로 實用的인 것이 많지 않은 점.
- 5) 선비만을 중히 여기고 生産者를 賤視 여기는 弊習 등을 들었다.³²⁾

이와 같은 장지연의 냉철한 현실인식의 결과는 기술의 개량을 위한 新敎育과 개량된 기술로 생산된 양질의 공예품 수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양의 부강은 … 新學의 功”이라고 하면서, 新學을 “泰西의 近代科學으로서 理化學, 工藝, 鑛務, 農商, 機器 등 實地應用的 學問”으로 규정했던 그는, 교육을 국민 계몽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각하였다.³³⁾ “民智를 열고 國力을 기르는 道는 敎育과 産業의 발달이 아니고 어디서 찾겠는가”라는 말 속에는 이러한 그의 의지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좋은 예라 하겠다.³⁴⁾

또한 수출에 비해 수입량이 두배가 넘는 심각한 무역 역조현상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³⁵⁾

이와 같은 공예적 여건을 개선하는 방법은 敎育과 實業의 진흥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한

30) 《皇城新聞》, 1903년 1월 10일자 논설 참조.

31) 張之淵, 〈自強主義〉, 《大韓自強會月報》 제 2 권 3호, 1906년 10월호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빈약해진 원인으로는 生産增大, 産業復興에 열의가 없고, 自然資源의 개발과 이용을 포기하여 이웃나라가 수탈하도록 방치함으로써 富의 根源을 두절시킨 점, 官吏의 쟁탈, 봉달질, 국고도둑질, 아부를 일삼는 등의 폐단, 土豪와 卿紳의 토색질, 의존적이고 안일하여 게으른 기풍을 조장하는 가족제도와 정치제도, 新學問의 과업에 대만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32) 〈論工藝獎勵之術〉, 《皇城新聞》, 1903년 1월 10일자 논설.

33) 〈殖産興業의 必要〉, 《大韓自強會月報》, 創刊號, 1906년 7월호.

34) 이광린·신용하 편저, 〈大韓自強會趣旨書〉, 《자료로 본 한국문화사》, 근대편(일지사, 1984), p. 244 참조.

35) 《皇城新聞》, 1899년 11월 25일자 논설. “種收天産과 採取地寶와 製造人工에 妙法을 各用하여 極精極美하며, 至廣至膽하여 外國物品은 外國에 수출하여 1년 수출물이 多하고, 輸入物이 少함이 三也니….”라고 하여 국제수지의 흑자가 곧 富國의 방법이라는 무역의 기본원리를 터득하고 있던 장지연은, 1898(光武 2)년 한해의 수출입 상황에 대하여 “各 港口의 세관의 進出國 物貨를 조사한 즉 外國 수입 물품이 1,181만 7,562元이요, 本國 수출품이 570만 9,489元”이라고 하면서 수입량이 수출량의 두배가 넘는 심각한 무역 역조현상을 우려하였다.

장지연은, 학생들에게 신학문을 배울 것을 적극 권장하였다. 특히 그는 청년자제들에게 신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新書籍 및 교과서의 印布를 주장하는 한편, 近代式 기술학교의 설립 및 의무교육 실시운동을 전개하는데 앞장 서기도 했다.³⁶⁾

뿐만 아니라 그는 신학문·신기술을 효율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日本이나 歐美 등지에서 留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권회복의 상대국으로서 적대감정을 갖고 있던 일본에 대한 유학을 장려하는가 하면, 심지어 “日本의 明治維新의 성공이 歐美유학을 통해 서구학문을 체계적으로 익힌 伊藤博文, 井上馨, 福澤諭吉 등의 維新功臣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던 사실은 그의 기술 개량에 대한 의지를 뒷받침해 주는 자료라 하겠다.³⁷⁾

이상과 같은 장지연의 공예제작관은 식산흥업을 위해 서구의 新技術을 과감하게 수용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그 기술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開物成務”의 제작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東道西器的 입장에서 개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작활동에 임하는 제작담당자의 정신과 태도를 제고시켰던 점은, 새로운 제작기계의 도입으로 인해 크게 위축된 이무렵 장인들의 의욕과, 수공예 분야의 기술 수준이 그전 시기에 비해 현저하게 퇴조했던 당시의 공예적 상황에 비추어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그리고 기술 운용에 대한 그의 이러한 주장은, 수공예기술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제작수단으로 일부 수용되었던 기계기술의 영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생산기계의 수용과 그 기술의 체계적인 습득을 위해, 기술학교의 설립은 물론 留學의 필요성까지 주장했던 그의 관점의 당위성은 당시에 폭넓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듯,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작수단의 기계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수공예 담당층과의 제작역역상의 갈등 국면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³⁸⁾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주권의 침탈이라는 위기상황에 공동대처해야 한다는 국가적 대의 명분과 함께 개화와 식민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타율적으로 주도되었던 탓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의 주장이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폭넓은 대중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던 때문으로 여겨진다.

36) 〈學生界의 注意〉, 《慶南日報》, 1910년 5월 1일자 기사 및 〈書籍印布爲開明之一功業〉, 《皇城新聞》, 1905년 4월 4일자 논설 참조. “近者 各種學校之彬彬興起는 吾輩所慶祝者어니와 但所憾者는 其專門高等學堂은 姑無論하고 至於普通小學校라도 所謂 教科書之種類라 未免於齒疎謬하여 絶無完全精備之書 하니 教育之不振이 亦豈不因此而使然哉아…… 當今爲國之計는 吾輩同胞者 宜各相注力於書籍之廣佈와 新書籍之購覽하여 雖一日一寸이라도 增長知識이 實爲愛國之血性也나…”

37) 〈論教育發達之策〉, 《皇城新聞》, 1902년 12월 13일자 논설 참조. “吾邦之人도 如欲求教育之効인데 捨西士之新學이면 無以發其精微之蘊而 吸其開明之矣라 是以로 於國內學校에 以經術爲成就道德之本이나 必以西士新學問으로 爲教課學之業하고 日勤送年少하여 游學外國에 誠爲今日之急務나…”

38) 생산방식이 手工業에서 機械工業으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전통 수공예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그들의 생업과 제작영역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 기계화에 대한 구체적인 반발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産業革命 직후 영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러다이트운동(Luddite, 기계파괴운동)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미술공예운동(Arts & Crafts Movement)〉, 〈아르누보〉에서 〈바우하우스(Bauhaus)〉로 이어진 일련의 유럽 공예운동사의 흐름도 근본적으로 생산기계의 발명에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맺음 말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장지연의 공예에 관한 견해는,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위기의식이 점차 고조되던 구한말의 정치적 상황에서 표명된 것으로, 富國·自強과 국권회복을 위한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전개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장지연이 공예를 그의 중심사상인 實踐的 自強論과 관련하여 功利的 입장에서 인식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이무렵의 시대적 상황에서 담당해야 할 공예의 기능과 가치, 존재의의를 등을 함께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바가 크다. 장지연이 ‘공예’라는 용어를 공업, 산업 등과 같은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했던 것도, 생활용기를 포함한 인공적 제작물로서의 物産이라는 전시기까지의 전통적 관념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그가 이러한 공리적 관점에 토대를 두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산업기계 및 기술의 도입과 이를 위한 신기술의 교육, 기술교과서의 印布 그리고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의무교육과 외국유학까지 적극 권장하는 등 제작수단의 과감한 혁신을 촉구하였던 점에서는 그의 근대적 인식 수준과 함께 적극적인 개량의지를 엿보여 준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이무렵까지의 공예에 관한 봉건적 인식을 근대적 인식체계로 전환시키는데 계도적 구실을 담당하였으며, 이후의 새로운 제작영역인 산업공예나 공업디자인 분야의 대두를 예고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장지연은 제작활동에 관해서도 독자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는 전시기에 비해 기술적으로 크게 퇴조한 당시의 공예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공예의 흥업은 기술에 있다”고 하면서 제작활동에 있어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구의 산업기계와 그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하면서도, 한편으로 제작에 임하는 공예가의 정신과 태도, 기술의 운용 등에 관해서는 전통적 세계관의 하나인 ‘開物成務’의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다. 그의 이러한 제작관은 개화를 주도했던 절충적 개화사상인 ‘東道西器論’에 이념적 근거를 두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고치자는 것은 기술이지 정신이 아니다’ 고 하였던 그의 말 속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 된다.

이상과 같은 그의 공예에 관한 견해는 이무렵을 기점으로 하여 크게 변모하였던 공예적 여건과 새롭게 도입된 제작수단의 정착과정 등 근대공예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공예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제고시키면서, 공예를 공예품 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구한말의 시대적 상황에서 당면 문제로 대두된 부국·자강과 국권회복을 가능케 하는 가장 현실적인 실천과제의 하나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근대공예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더욱이 그의 주장이 국권회복이라는 국가적 대의명분에 기초하여 대중계몽에 효율성이 높은 신문매체를 통해 발표됨으로써 폭넓은 공감을 통해 여론을 주도하면서 대중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다만 그의 공예관이 구국을 위한 계몽적 입장에서 개진됨으로써 공예분야 자체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제시에는 미흡했던 점과, 공예의 기능과 가치를 공리적 차원에 둬으로써 공

예의 형성원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審美的 기능에 관해서는 그의 관심이 미치지 못했던 점 등은, 공예의 전문성과 예술성에 대한 그의 개인적 한계이자 시대적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다.